혐오와 편견의 늪에 뛰어든 퍼스트 펭귄, 이준석 망언집

오늘은 ‘청년정치, 정치개혁’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이준석 후보의 민낯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. 스스로를 ‘퍼스트 펭귄’이라 칭하며 가장 먼저 물살을 가르겠다던 이 후보는, 사실은 혐오와 편견의 늪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든 후보입니다.

이 후보는 젊은 목소리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특정 계층을 배제하고 분열을 조정하는 ‘양두구육’의 전형이 되어, 혐오와 편견의 늪에 뛰어든 퍼스트 펭귄입니다.

이 후보는 2016년 위안부 피해자를 ‘이해당사자’라 하며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하고, 박근혜 정부의 10억 엔 합의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. 2022년에는 “여성 투표율이 낮다”는 발언으로 유권자 편가르기를 조장했습니다.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‘천찍○○’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내팽개쳤습니다.

이 후보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2011년, 삶의 벼랑 끝에 선 전국철거민연합을 향해 ‘미친○○’이라 조롱하며,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를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.

이 모든 발언은 양두구육의 전형입니다. 청년정치라는 화려한 구호 뒤에 감춰진 분열과 배제를 일삼는 이 후보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.

이에 저희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은 이준석 후보의 무책임한 망언을 집대성한 <혐오와 편견의 늪에 뛰어든 퍼스트 펭귄>을 공개합니다. 이 자료를 통해 허울뿐인 구호 뒤에 감춰진 이 후보의 실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진정한 청년정치, 정치개혁은 가장 약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, 사회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데서 시작됩니다.

2025년 5월 29일
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
단장 강득구, 부단장 정준호·박관천